

여자축구 끝씨만은... 체면걸린 중국전

오늘 동아시아컵 최종전 패배시 3전 전패 '망신살'

윤덕여호가 중국을 잡으려 나선다. 이기면 '유종의 미'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15일 일본 지바 소가 스포츠 파크에서 2017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최종전을 벌인다. 중국과의 마지막 승부다. 2005년 국내 대회 이후 12년 만에 우승을 노린 대표팀은 일본과의 개막전에서 2-3 패, 북한과의 대결에서 0-

1로 패하며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윤 감독과 선수들은 3전 전패로 대회를 마칠 수는 없다는 각오다. 대표팀은 2008년 중국 대회에서 중국, 일본, 북한에 3연패를 당하며 4위로 대회를 끝냈다. 3연패는 처음이었다.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국에 패한다면 약 10년 만에 같은 성적표를 받게 된다. 대표팀 관계자는 "북한전 패배 이후 선수들의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08년 대회의 악몽을 재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전했다. 결과는 좋지 않지만 한채린(위덕대)

이라는 기대주를 발굴한 점은 이번 대회의 소득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미국 원정경기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한채린은 당시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통렬한 중거리 슈트를 성공시키며 눈도장을 찍었다. 이번 대회 일본과의 첫 경기에서도 비록 패하긴 했지만 멋진 골을 터뜨리며 윤 감독을 미소짓게 만들었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대 전적 4승5무25패다. 동아시아컵에서는 2승3패를 기록 중이다. 2015년 중국 대회에서 정설빈(인천현대제철)의 골로 1-0으로 이긴

것이 마지막 승리였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내년 4월 요르단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나선다. 아시안컵은 2019년 프랑스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을 겸한다. 3연패에 빠진다면 분위기가 차질 수 있다. 선수들의 자신감 회복, 아시안컵에서의 선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감독은 "마지막 3차전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남은 시간 회복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시

오늘의 사진 - 대회수상하는 심석희



1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MBN과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여성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쇼트트랙 심석희가 장대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전북현대, 내년 3월까지 2018 시즌권 판매



K리그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백승권)이 2018 시즌권 판매를 시작한다.

전북현대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를 통해 시즌권을 판매한다. 2018년 시즌권은 기존의 VIP석, 이벳 존, W석, E/N석과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코너석(기존 W지정석)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패키지

형태로 판매된다. VIP석과 이벳 존 구매자는 유니폼형 티셔츠, 시즌권 케이스, 목걸이 등으로 구성된 그린셔츠 팩을 지급받게 된다. 2018 시즌부터는 AFC의 권고사항에 따라 모든 경기에 지정좌석

을 도입하게 되며 시즌권 역시 지정 좌석을 선택해 구매를 해야 한다. 2018 시즌권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인터파크(구매:1544-1555)와 공식 기념품샵 초록이네(배송:070-4115-0402)로 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스포츠스타 재벌랭킹 1위는?

마이클 조던으로 2조원... 2위는 우즈 1.8조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스포츠 스타는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54·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14일(한국 시간) 세계 프로 스포츠 선수 중 프로 데뷔 후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상위 25명을 선정해 소개했다. 프로 입문 후 올해 6월 1일까지 받은 연봉, 보너스, 상금, 광고료, 상품 라이선스 계약금, 출판 인쇄, 골프코스 설계비 등을 합산했다. 투자 소득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형평성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수입에 반영했다. 1980~1990년대 농구 아이코인 조던은 1984년 프로 데뷔 후 지금까지 총 18억5000만 달러를 벌었다. 약 2조1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조던이 선수 시절 받은 총 연봉은 9300만 달러(약 100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수입의 20분의 1 수준이다.

나머지 수입의 대부분은 광고 모델과 용품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벌어들였다. 음료회사 게토레이, 언더웨어 브랜드 헤인즈, 스포츠용품사 나이키, 스포츠카드 제작사 우퍼텍 등 수십 개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고 일부는 여전히 계약을 유지 중이다. 특히 나이키의 '에어 조던' 브랜드는 연간 1억 달러 안팎의 수입을 안겨주고 있다. 조던은 자신의 고향을 연고로 한 미국프로농구(NBA) 샬럿 밥캐츠(현 샬럿 호네츠)를 2010년 1억7500만 달러를 주고 매입했다. 현재 구단 가치는 7억80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조던은 샬럿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2위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 대회 14승 포함 통산 79승을 거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42·미



국)다. 우즈는 데뷔 후 상금과 광고 후원 계약 등으로 17억 달러(1조84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네 차례나 허리 수술을 받으며 단 18개 대회 출전에 그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골프계에서 우즈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골프의 전설' 아놀드 파머(사망·미국)와 잭 니클라우스(76·미국)가 각각 14억 달러(1조5000억원)와 12억 달러(1조3000억원)로 3, 4위를 차지했다. '모터스포츠 황제' 미하엘 슈마허(48·독일)가 10억 달러(1조860억원)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우즈의 라이벌 필 미켈슨(47·미국)은 8억1500만 달러(8850억원)로 6위를 했다. '포스트 조던'으로 불린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39·미국)와 영국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42)은 8억 달러(8700억원)로 나란히 7위를 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40·미국)가 복싱 선수 중에서는 가장 많은 7억8500만 달러(8520억원)를 벌어들여 9위에 올랐다. '공룡센터' 사킬 오닐(45·미국)이 7억3500만 달러(7980억원)로 10위를 차지했다. 통산 5번째로 발롱도르를 수상한 레알 마드리드의 상징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포르투갈)는 7억2500만 달러(7870억원)로 12위, 라이벌 리오넬 메시(30·아르헨티나)는 6억 달러(6500억원)로 16위를 했다. 미국프로야구(MLB) 선수 중에서는 퇴한 알렉스 로드리게스(42·미국)의 7500만 달러와 데릭 지터(43·미국·4억9000만 달러)가 순위에 들었다. 종목별로는 농구, 골프, 복싱 선수가 5명씩으로 가장 많았다. 축구 선수 3명, 테니스와 야구, 모터스포츠 선수 각 2명, 미식축구(NFL) 선수 1명이 포함됐다. /뉴스시

도내 장애인 체육발전 머리맞대

전북장애인체육회 하반기 워크숍 열고 방안 모색

전북장애인체육회는 14일 도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군지부 및 경기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군산리마다호텔 갈라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종목별 경기단체장 및 실무자, 시군지부 사무국장 등 90여 명이 참석해 도내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도내 장애인 이용 가능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접근성 확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종목별 전문지도자 배치, 지역별 장애인전용체육센터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도 장애인체육회 노경일 사무처장은 "도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사업을 확대운영하고 시군지부 설립 및 지역별 장애인전용체육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